

향기로운 예물

기일 085-056206-04-111(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주경, 주일, 평기 흐르(이쁜/흐르 예 총길동주경, 총길동성례)

◆ 심일조현금 기일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최선미) 윤희진 이필례 김선희 최유경 김창길(백경자) 맹지혜(임기빈) 박복례 박진숙(윤영준)
성미영(박영식) 송부현(김영진) 안금자 오귀숙 오영순 유은자 윤병호(백남실) 윤예원 이기자
이명희(문영원) 이상희 장명원 정삼례 황경연(정선영) 황상근

◆ 선교현금 기일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이필례 김선희 맹지혜(임기빈) 박은숙(정양학) 손정아(김영경) 송부현(김영진) 안금자 유은자
윤병호(양영욱) 윤영준(박진숙) 이경자(주경덕) 이기자 이명희(문영원) 이항교 장명원 조규례

◆ 감사현금 기일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윤희진(최유경) 이필례 김경열(손정아) 김병호(이영숙) 김정연B 김종익(박애순) 김춘화 남해순
박복례 박순자(이동수) 박종삼(이영원) 박진숙(윤영준) 방복순 서재희(김현구) 송다해
송형기(김현숙) 염영분(천세혁) 오귀숙 오현일 이미자 전계자 전순봉 정선영(황경연) 최귀남(박부웅)
최기훈(정계숙) 최성현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강은미 김민서 김민준 김아이린 김이안 김준구 민옥희 박민서 박순자 박영식 방복순 서로이
서로하 송백현 양영욱 양일석 오기쁨 이강우 이경자 이노율 이미자 이상미 이상희 미소은 이마흔
임윤경 정서연 정양학 주성탁 최대현 최봉순 최선미 최호자 하세현 홍유정 홍은민 홍준민 무명

◆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33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열왕기하 25장 1절 ~ 17절		
월요일	열왕기하 25장 18절 ~ 30절	목요일	대설로니가전서 2장 13절 ~ 20절
화요일	대설로니가전서 1장 1절 ~ 10절	금요일	대설로니가전서 3장 1절 ~ 13절
수요일	대설로니가전서 2장 1절 ~ 12절	토요일	대설로니가전서 4장 1절 ~ 12절

월로 장로	이태일 정기성 윤조훈
시무 장로	강영성 김병호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박증삼 최상결
은퇴 장로	방현숙 장명원 문영원 천세혁 방석태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 목사 윤희진
	전도사 이필례
	교육전도사 김선희 김윤주 최유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시온 : 이상아
	반주악단 오르간 삼혜윤
	피아노 지예빈 김민지 김미희 삼혜윤 최선미 이상희
	클라리넷 박진숙 미난수
	플룻 김민지

슬리스트	이수경 이상아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수리남 : 안설클리스티나 미국 : 김다니엘 미국 : 최옥희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숙 정세미 멕시코 : 김홍기

선교사	제주 대광장로교회, 즐거운교회, 기나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종회 세계선교회(B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영등포시찰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서울남노회 미래 자립위원회.

2024.08.11.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마가복음 8장 27절 ~ 9장 1절

설교: 이진우 목사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나,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판단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들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상식이 항상 옳다고 할 수 있는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의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르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오직

1.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분별 할 수 있습니다.

-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이 물음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 하나님과 대답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철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막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성도들에게 계시의 영이 암하기를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모든 일 역시 성령의 감동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언제나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으로 지혜를 얻지 못하면,

2. 시坦에 속한 사람의 일로 행하게 됩니다.

- 베드로가 고백한 후에 예수님이 비로소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가르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는 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불들고 그렇게 하자 마시라고 헛변합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놀라서 자기 땐에는 잘한다는 의사표시로 예수님을 강하게 반대하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불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반대하며 꾸짖고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까지는 아르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셔야 할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직 받아들일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고, 베드로 입장에서 즉, 자기의 생각과 뜻,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보편적 상식과 지식에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坦이라고 칭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막아선 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시坦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시坦아 물러가라.” (마16:2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된 사람의 생각은 시坦의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또 조금 전에,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그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하신 직후였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나는 믿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후에, 설족하거나 범죄 할 가능성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인간적인 생각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3. 죽어야 사는 영적 원리를 깨닫고 살현해야 합니다.

- 예수님이 죽음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죽어야 사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죽음을 각오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밝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장차 복음과 함께 당할 고난을 이겨내야 험을 교훈하십니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배신하는 자는 영원한 멸망을 받지만,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의 영이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며,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비로소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부희과 영생을 향한 과정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위해 오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 우리의 생각도, 행동도 오직 성령의 충만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 잠시 동안의 고난을 피하지 않고, 성령의 지혜와 분별함, 능력과 권세로 이 모든 일을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50 - 33

2024. 08. 18.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로마서 15장 13절)

목표: 1. 진리 파수 2. 천국 일꾼 양성 3. 민족 복음화 4. 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생수의 우물

A well of living

흐르는 시내

Flowing streams
(아가 4:15)

담임 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 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스: 2689-1230
- 홈페이지: www.sunghyeon.or.kr

